

※참고자료 : 부산시 반론보도 청구 소송 관련 주요 일지 및 제작진 입장

1. 주요 일지

날 짜	내 용
22-04-28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 '부산·대구시장 공약 이행 점검 1부' 방송
22-05-05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 '부산·대구시장 공약 이행 점검 2부' 방송
22-05-10	부산시, 언론중재위 부산지부에 부산MBC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신청
22-05-25	언론중재위 1차 조정 - 부산시, 13개 항목에 대한 A4 3장 분량의 정정보도문을 읽어줄 것을 요구. - 부산MBC, 부산 시장이나 부산시 관계자가 빅벙커에 출연해 15분 도시에 대해 후속 논의할 것을 제안.
22-06-16	언론중재위 2차 조정 - 부산시, 후속 방송 거절. 축약된 정정보도문을 읽어줄 것을 재차 요구. - 부산MBC, 각 항목에 대한 전체 정정보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 - 언론중재위, 최종 '조정 불성립' 결정.
22-06-19	부산시의 반론보도 청구 소송 제기 - 13개 항목(16개 발언)에 대해 A4 2장 분량 반론보도문 진행자 낭독 및 자막 안내 요구 - 불이행시 1일 500만원 현금 지급 등 요구
22-09-07	1차 변론기일 예정

2. 제작진 입장

부산시가 해당 방송에 대한 반론권 요구가 아니라 시장의 핵심 사업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 제작진은 이에 굴하지 않고 15분 도시 정책을 비롯해 부산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이어나갈 것.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핵심 역할에 더욱 충실해지는 것이 이번 소송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라고 생각한다.